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 무주군, 1분기 추진실적 보고회 가져... 분야별 대책 수립·세부사업 추진 박차

무주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7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특성을 보이고 있는 무주군이 인구감소 등으로 불안정해지는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은 경제활동 및 교육여건의 부족, 고령화가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수립과 세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여성과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여성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에 비롯한 주거 지원책 마련에 집중한다.

또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통합서비스를 통한 노동 생산성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대응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공공·생활서비스를 지역과 마을 거점으로 집약시키고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식품·여가산업 창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주군청 기획실 주홍규 실장은 "실



무주군 인구구조 변화대응 1분기 추진실적 보고회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 분기별 성과와 현안 사업들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인구문제가 특정 부서, 직원만의 임무가 아니라는데 뜻을 모아 무주군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꼬리표가 무주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무주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 인구구조 변화대응 1분기 추진실적 보고회는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인구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한 무주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서별 관련 시책추진 실적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관내 기관·단체·기업의 인구유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무주군 인구정책 및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인구유입 유공기관의 인센티브 진입 구간을 당초 10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인삼,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 인삼재배 대한 문화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7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진안 인삼재배에 대한 문화 학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배완기 농촌경제국장 주재로 농축산유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으며, 용역수행자인 (사)무형문화재연구원 함한희 원장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진안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안인삼에 대한 농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지역 농업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 보전하기 위해 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진안 인삼재배 문화에 대한 기초조사, ▲진안 인삼재

배 세부내용, 역사 등에 대한 개관,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정가치 조사, 적합성 및 필요성, ▲인삼재배와 문화의 효과적 전승·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진안인삼의 전통제조 방식에 대한 연구 등이다.

군은 이번 학술조사 및 연구가 진안 인삼재배의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대표성 등을 규명하고 무형문화재 지정으로까지 이어져 진안인삼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 인삼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완기 국장은 "농업유산으로서의 진안인삼 가치 발굴과 체계적인 사료 정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진안인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진안 인삼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제32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4월 7일 하루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 1·2차 수시분 공역재산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개회식에서 김용문 의장은 (주)바른종합건설 김희열 현장소장과 재무과 장문정 주무관에게는 장수군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로로, 축산과 이정란 팀장은 가축방역예방활동에 대한 기여로 의정발전 유공 표창을 했다.

김용문 의장은 개회식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지역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2개 지자체 중 우리 장수군이 포함될 것에 대해 군민과 공직자에 감사사를 표하면서 곧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고, "봄철 산발예방과 농자재 적

기 공급 및 농업기반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영농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회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한국회 의원은 5분 발언으로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나금래 의원은 '(구)장계남초등학교 방치 및 관리부실에 따른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곤충이야기 체험관' 볼거리·체험거리 다채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반디랜드 내 사계절 곤충을 체험이 가능한 곤충이야기 체험관이 지난 6일 새롭게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게 됐다.

군은 반디랜드 소규모 동물동장 주변에 위치한 '무주곤충이야기 체험관'은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새 단장해 반디랜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곤충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식용곤충의 한정적인 전시·체험에서 벗어나 무주에 서식하는 살아있는 곤충과 나비 전시를 통해 생동감이 넘치는 체험장으로 탈바꿈 했다.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체험관 구성은 로비에 사계절 살아있는 곤충전시와 나비 전시실 등 식용곤충 전시실, 나비 사육실, 식용곤충 교육 체험실로 구성돼 있으며, 큰줄린 나비, 한점박이 꽃무지, 생별 귀뚜라미 등 15종 곤충을 전시 중에 있다.

이곳에서는 애반딧불이를 비롯해 물방개, 장구애비 등 수서곤충과, 나비와 장수풍뎅이 등 애완학습곤충을 체험할 수 있으며, 식용곤충에 대한 교육 체험도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양봉관리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과정 밟은 무주지역 교육생 전원 합격 쾌거

2021 양봉관리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과정을 밟은 무주지역 교육생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론교육 10회, 현장실습 2회 과정으로 진행된 양봉관리지도사 자격증(3급) 취득반에서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 24명이 시험에 합격했다.

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격증 취득으로 농업인의 전문 기술습득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양봉능가 육성과 농가소득을 꾀하기 위해 매년 농업인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양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개념, 실무교육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개념, 실무교육을 통해 양봉관리와 기술 능력을 겸비한 양봉인 육성에 주력했다.

이번 교육은 양봉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양봉의 이해와 알뜰, 꿀벌의 종류와 생태, 꿀벌 관리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법, 효율적 양봉관리, 양봉기술능력 등 교육과정을 밟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봄철

### 조림사업 본격 착수

진안군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2021년 봄철 조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올해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조성 ▲큰나무공익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 ▲지역특화 조림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하며 총 조성 면적은 172ha에 이른다.

특히 관광지 및 도로변 주변 공공녹지, 생활권 주변 녹지 등에 나무조림사업을 확대해 도심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 서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현재 지난 2020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산림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조기발주와 묘목 활착률 향상을 위해 4월 말까지 상수리, 백합나무 등 묘목 총 40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

장수군이 경작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이번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현재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에서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PC:card.nonghyup.com/모바일:smartcard.nonghyup.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30만원씩 지급된다.

바우처는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종자 등 농가필수품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7일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활동 수행이 곤란한 자, 대학교 등 재학생, 재정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서는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지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지원단 4명 추가 모집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선제적인 산림보호 활동 수행과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모집한다.

현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채용해 산림보호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신청일 기준 무주국유림관리소 관할지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한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취약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산림보호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